

전남 농어촌 어떻게 하나

인구 감소에 급속 증가 8399동 방치 ... '빈집은행제' 도입 등 제도 보완 시급

일정기간 이상 방치된 빈집 시·군 직권매입 철거 손쉽게 법령 개정·절차 간소화해야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남으로의 도시민 유입과 읍면 시가지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전남도내 빈집이나 공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촌 뉴딜 300 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가고싶은 섬 사업 등 농산어촌이나 섬 등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타지에 거주중인 소유주들이 미래 가치 상승을 예견해 빈집 등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빈집 등에 대해서 시·군이 손쉽게 직권매입이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보다 면밀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미사용중인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8399동으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5676동, 활용 가능한 2723동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4년 1만2365동에서, 2015년 1만1534동, 2016년 1만2093동, 2017년 9645동 등 감소세에 있으나 이러한 통계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미지수다. 빈집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군 등 공공기관이 빈집 등에 대한 강제 매입 및 철거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절차 간소화 등도 요구되

고 있다. 우선 매매가, 보상가의 경우 현실 수준을 반영해 올리고, 철거비용에 대한 지원 금액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명시된 빈집 직권 철거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에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빈집 등의 장기 방치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경우 대부분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농어촌 주택을 물려받지만 이를 처분하기 보다는 가치가 높아질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지역에서만 강제철거가 가능하지만,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

·군수 등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84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671동을 정비한 바 있으며, 올해는 15억5500만원을 들여 21개 시·군 내 1138동을 철거할 방침이다. 동당 철거비는 50만~2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전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농어촌 빈집 500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나 공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특히 활용 가능한 빈집의 경우 귀농·귀어·귀촌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빈집은행제" 등 보다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전남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검찰 '조국 의혹' 수사

부산대·고려대·단국대·공주대 등 압수수색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교형근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

찰은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등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노 원장 등 부산지역 의료기관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교 재학 시절 인턴십을 하고 논문 등을 작성한 단국대와 공주대의 담당 교수 연구실, 인턴 활동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학한 고려대 입학 담당 부서 등지에서도 관련 기록을 확보해 입학 과정에 미심쩍은 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2학기 동안 적을 두고 장학금 802만원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12~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역귀성·귀경 KTX 할인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올해도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내달 12~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 이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일요일)은 면제가 아니다.

연휴 기간(12~15일) KTX 역귀성·역귀경 승차권 가격을 30~40% 할인한다. 교통량 분산을 노린 조치다. 교통량이 몰리는 11~15일에 대비한 특별 교통대책은 내달 10일 발표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량 분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11~16일을 향반서비스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교대 휴무 근로 등으로 물류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동안 전국 세관은 24시간 통관 체제

를 유지하고, 선적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달 12~29일을 '가을여행주간'으로 지정한다. 연휴 기간 KTX와 관광상품(렌터카·숙박 등) 연계 할인, 가족여행객 할인 등 상품을 판매한다. 전국 1만 6000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정부24(www.gov.kr)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체계는 유지된다.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응급의료포털(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서포터즈 해단식 27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해단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시민 서포터즈 등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설화수 몰레그스틴오일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스틴오일: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